

# 하루 아침에...내 집 앞 주차 못한다고?

광주 동구 계림1동 거주자 우선 주차 전면 재등록 ‘시끌’  
기존 이용자 ‘후순위 배정’에 탈락 위기...“형평성 역행”

광주시 동구가 계림1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이용자 재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를 차순위로 배정하기로 하면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동구는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하루아침에 원정 주차에 나서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계림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3곳(79면)에 대한 기존 이용자 등록을 일괄 해지하고 신규 이용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주차면을 만들어 거주민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구는 2017년 2월 계림1동 일대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3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2019년에는 차단봉을 설치하고 287대 차량을 등록해 주차를 허용했다.

이후 이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등록 차량 중 ‘허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갈수록 늘었지만, 주차장은 텅텅 비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동구는 실제 수요와 실이용 차량 숫자의 간극을 해소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줬다며 이용자를 전면 신규 등록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은 ‘차순위’로 배치되고, 신규 이용자들이 우선 배치되도록 규칙을 정했다는 점이다.

신규 이용자들을 받기 위해 기존 이용자들은 아무리 일찍 등록 신청을 해도 뒷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청 대상인 계림동 7~12동에 등록된 차량만 1243대에 달하고,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기존 이용자들은 내년부터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동구는 주차장 발급 규모도 기존 287대에서 250대 수준으로 줄였다.

동구 계림동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 주차 공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경택(64)씨는 “당연히 기존 이용자를 우선 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안내 현수막을 그냥 지나쳤다. 주차장을 이용해온 주민들은 어디에 차를 대라는 것이냐”며 “기존 이용자를 뒷순위로 밀어낸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양성열(69)씨도 “주차장이 생긴 뒤 줄곧 차를 대왔는데 갑자기 등록을 취소하고 후순위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적어도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등록이 안 되면 결국 차를 멀리 대고 걸어오거나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반면 동구는 기존 이용자와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차등 적용은 불가피했다. 접수 추세가 빠르지 않아 기존 이용자들도 일부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흡했던 관리가 개선되면 실제 이용 차량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발급 기준을 소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노상 주차장을 확대해 내년 중 새로운 주차장을 개설할 예정이다”며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었다.

북구는 2022년 7월 중흥동 일대 단독주택, 상가, 원룸 앞 등 220여 곳에 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한 번 정기 배정을 통해 주차면 수 배정을 하고 있으며, 자리가 비면 수시 모집을 해 배정하는 식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는 3년이 지났지만, 북구 사업담당자는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얽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이용 신청을 일일이 북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도를 찾아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라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거주자전용주차구역 중 5면을 유료로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사업도 시작했지만, 제3자가 사용 시간을 넘어서서 장기 주차를 하는 등 주차 시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남구에서도 지난 2002년 6개월간 전월·주월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주민 반발에 폐지한 적 있다. 주차요금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과 외부차량 과대료·견인 처분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탓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노상 주차장 단속을 하며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9일 광주시 동구 계림1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차량이 드문드문 주차돼 있다.

## “내란 옹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장 사퇴하라

광주 시민단체 촉구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세계인권 날(10일)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비호 논란에 휩싸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90여개 시민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본연의 책무를 상실하고 인권 후퇴를 초래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진 보장 권고안’을 연

급하며 “국가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책무보다 특정 권력에 대한 방어에 치우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안 위원장의 행보는 5·18 정신을 훼손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약화시켰다”며 “정부는 인권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인권위는 책임 있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안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 ‘과잉 우려’ 도수·온열·신경성형술 건보 적용

의협 “조급한 정책 중단해야”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협의체 논의에서는 과잉 이용 문제가 컸던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가운데 증식치료를 제외했는데, 이번엔 첫 관리급여 지정 과정에서 체외충격파치료가 다시 빠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를 개선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완도 매생이 양식장도 고사 피해 확산

매생이 업체 탈락 현상 22% 달해

완도지역 미역 고사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매생이 재배지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완도 금일·청산·금당면 지역 미역 양식장에서 미역 업체가 탈락하고 고사하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완도에서는 3212여가 29만 2572줄에서 미역을 양식 중인데, 이 가운데 61%인 1만73029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주 전보다 5%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완도 미역 어가에서는 지난 9~10월 경 이식한 미역 업체들이 더이상 자라지 못하고 1~2cm 머무르거나,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 뿐 아니라 매생이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완도지역 어가에서 양식 중인 매생이에서 업체 탈락 현상이 나타나, 1만1780척, 전체

양식장의 2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 바다 수온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린다거나 지난 10월께 완도 인근의 바다 수온이 9월 말보다 높거나 수온이 내려가지 않고 정체기에 머문점 등이 업체의 고사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역의 경우 상품성이 높은 식용 미역 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어민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이상 포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철(민주·완도1) 전남도의원은 이날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피해 전수조사가 늦어지고 조기 경보 체계 부재 등, 전문적인 관측·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겨울비 뒤 주말 영하권

11일 광주·전남 비 5mm

겨울비가 내린 뒤 다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11일 광주·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2~4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를 보이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렀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가 예상된다.

비가 내린 이후 12일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고 주말인 13일에는 전날보다 5~7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춥고 비나 눈이 내릴 곳이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엔 안개가 열려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